

원 했던 원 하지 않았던 군인이 되었다면 그 군인의 임무 특성상 항상 자신의희생을 곁에둬야 합니다

작성자 haesamLee (@haesamLee) 작성일 2010-03-27 12:32:22 (KST)

글 ID 11126172645 유형 일반

---

X에 저장된 본문

원 했던 원 하지 않았던 군인이 되었다면 그 군인의 임무 특성상 항상 자신의희생을 곁에둬야 합니다. 하지만 국토안보를 위한 죽음외에 정치논리에 의한 군인의 목숨이 거래된다면?

---

X 글 ID: 11126172645

X 아카이브 원문 보관 사본 · 353 / 593